

Pfizer, 흡입 인슐린 시판 허가

Snofi Aventis와 넥타르 공동개발 ... 연평균 10억달러 매출 기대

주사를 통하지 않고 흡입방식으로 투여되는 인슐린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미국 판매승인을 받아 당뇨병 환자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

FDA는 “Pfizer 등이 개발한 흡입 인슐린이 <이그주베라>라는 이름으로 시판될 것”이라며 “흡입투여방식은 1920년 인슐린 발견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Pfizer는 제1-2형 당뇨병에 모두 사용되는 신형흡입 인슐린 제제와 투여장치등을 Snofi Aventis 및 넥타르와 공동개발했다.

FDA는 “효과가 신속한 흡입방식 인슐린 사용으로 가끔 투여하는 기존 주사방식의 필요성이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손가락을 통한 채혈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DA는 흡입방식 인슐린 제제의 당뇨병 치료에 대한 화학적 데이터 검토를 위해 3개월간 승인결정을 미뤘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월26일 시판을 승인했다.

Pfizer는 신형 흡입 인슐린 제제의 시판으로 매년 10억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개발한 Snofi Aventis로부터 13억달러에 세계 판매권을 사들인 바 있다.

<화학저널 2006/02/01>